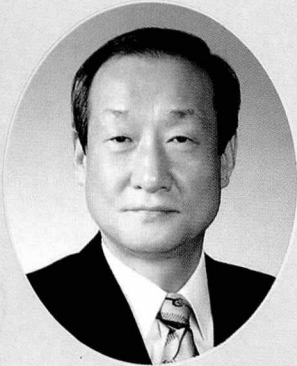


跳躍을 위한 大變身



오늘은 우리 협회가 창립한지 27주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이 기쁜 날을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가정에서 협력과 내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우리 협회의 공익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신 손해보험업계와 특수건물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회계연도는 환란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범사회적 구조개혁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협회도 예외 없이 예산을 줄이고 정든 동료 직원들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전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익방재업무를 완수하였습니다.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업무도 전력을 다한 결과 비특수건물에 비해 20% 이상의 큰 차이로 화재보험손해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수행하는 하이테크 연구용역, 시험인증, 방재컨설팅 및 방재전문교육 등의 업무는 당초 목표에 비해 20.5% 초과 달성하였으며, 국가중요보안시설에 대한 손해예방 및 보험공동인수업무도 목표를 4.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6월 30일 씨랜드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1백만명 목표 무료화재안전교육을 새롭게 전개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대체로 높은 업무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 할 것이며, 조직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장으로써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토지와 자본, 그리고 노동이 성장의 축이었던 20세기 "아날로그" 패러다임은 퇴조하고, 이제는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패러다임이 새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파워"의 중심에는 일찍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예고했던 "지식"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기술에 의한 지식혁명으로 고유의 업무영역이 파괴되어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방카슈랑스가 일반화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 무점포 판매장이 출현하는 등 사고와 관념의 틀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을 가진 국가나 기업만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으며 "지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21세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21세기 지식사회"의 트렌드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20세기 정체성을 떨쳐버리며 도약의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변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1세기 국가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방재 및 손해보험분야 관련

계와 정책당국,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우리 협회 지식경영의 목표인 "지식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직무경험과 업무지식을 이끌어 내어 方法知화하고, 기존 문서형태로 존재하는 각종 기술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각 업무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에서 효율과 생산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화재보험법에서 부여된 공익방재의 사명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히 도입한 업종별 전문직군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다른 안전기관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방재서비스를 특수건물에 제공할 것이며, 또한 점검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여 사원사가 보험 인수 및 보유율 결정시 필요로 하는 언더라이팅 기초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진정 국민과 손해보험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설립 이래 27년간 축적된 전문 기술력을 토대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시험연구용역과 방재컨설팅 및 방재전문교육 등 자체수입업무의 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술용역업무는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며, 기존의 사고와 업무관행에서 탈피하여 진정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업무개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조직의 미래는 우리 자신들의 확고한 의지와 흘린 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이제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평생직업은 있으나, 평생직장은 사라져 가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맡고 있는 업무분야에서 조직을 떠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는 때만이 개인도 조직도 발전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오늘 우리 협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말씀드린 "도약을 위한 대변신"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00. 5. 15

한국화재보험협회
이 사 장 오 상 현